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顯祖實錄探險

모암공慕庵公과 갈산공葛山公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모암공(慕庵公 諱 學仁, 1744~1784)과 갈산공(葛山公, 1745~1819)은 같은 시대 경주부(慶州府)에서 태어나 성리학(性理學)을 닦고 선조(先祖)의 위업을 후세에 드러내기 위해 문경세 재 길을 넘어 한 달씩 걸리는 한양을 오가는데 일생을 바친 공통 점(共通點)을 갖고 있다.

모암공(慕庵公 諱 學仁 31世)은 매헌공(梅軒公, 諱 士敏 1557~1634 壬亂義兵將 左承旨 經筵參贊官)의 7세 후손으로 경주부 부남(府南) 두동(杜洞, 동굴)에서 영조 20년(1744)에 태어나 정조 8년(1784) 41살에 서세(逝世) 하셨다.

자(字)는 화여(和汝), 호는 모암(募庵), 휘(諱)가 학인(學仁)이다. 모암공(慕庵公)은 매헌(梅軒) 선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두동(杜洞) 문중의 대표적 학인이자 집념이 고강하셨던 선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고 시서(詩書)를 읽었다. 예학(禮學)이 경지에 이를수록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 영남 좌도 70고를 민초들의 생목숨을 구한 매헌 선조께서 증직을 받지 못한데 여한(餘恨)을 품었다.

이런 여한을 풀기 위해 영남 사람들의 유소(儒疏)를 모으기 시작한 때가 1781년 37살 때다. 모암공(慕庵公)은 영남사람 455명이 연명한 매헌 선조의 사직기를 열 차례가 넘게 조정에게 올리고 군공(軍功)에 맞는 증직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유소(儒疏)를 냈으나 조정(朝廷)이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격분하고 직접 한양에 올라갔다.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거짓 전갈을 받고 두릉(杜陵)으로 급히 내려오셨으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는 그길로 집을 나설 만큼 고집스럽게 경주와 한양을 오간 6년(1787, 정조 11년) 만에 증직의 한을 풀었다.

모암공의 이런 집념이 없었으면 매헌 선조는 세상에서 묻힌 뼈였다. 영남 유림들이 올린 유소(儒疏)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문장력이며 시대상을 잘 나타내서 역사적 가치까지 지녔다. 이 유소(儒疏)에 서명한 영남유림이 천명에 이르렀으니 만인소(萬人疏)에 이름만다. 예조참판 남한노(南玄老)가 근서한 '정거기旌閭記'에서 나타났듯 매헌 선조에 대한 학인공(學仁公)의 노력은 희생적이었다.

모암공(慕庵公, 諱 學仁)이 정조대왕 행차를 가로막고 격쟁을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사람들은 멋과 풍류를 함께 지녔다. 정조는 시골 선비의 격쟁(擊箏)을 나무라지 않고 여전회에서 영상(領相) 서명선(徐命善 1728~1791)에게 "백성을 구한 이런 선비의 행장은 후인들을 위해서라도 증직을 받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비답을 서슴없이 내렸다. 경주시 내남면 동굴 햇빛이 좋은 언덕에 세워져 2백 년 풍상을 견뎌낸 매헌공(梅軒公 王亂義兵將/左承旨/經筵參贊官)의 충효정려(忠孝旌閭)는 후일 내렸다.

모암공(慕庵公)은 시서(詩書)를 꽃피울 나이였던 41살 되던 해 서세(逝世)하셨다. 모암공(慕庵公)이 돌아가시자 문도들이 병암산(屏岩山)에 산록(山麓)에 썼다가 후일 매헌 선조 묘소 아래 간좌(良坐)에 이장(移葬)했다. 배위(配位) 청안이씨(淸安李氏) 사이에서 필신(必信), 필술(必述, 繼子)을 뒀다. <자료출처: 조선왕조실록, 일성록日省錄 매헌실기梅軒實紀, 김갑주 저, 조선 후기 경주 지역 사람들>

갈산공, 단종의 절신絶臣 죽림공竹林公 증직의 한을 풀다

갈산공(葛山公 諱 宗洛, 31世 1745~1819)은 모암공(慕庵公)보다 1년 늦은 영조 21년(1745, 乙丑年) 경주부(慶州府) 강동(江東) 국당(菊堂)에서 태어났다.

자는 명응(明應) 호는 갈산(葛山) 또는 형와(兄窩)로 불렸다. 갈산공은 모태(母胎)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풍도(風度, 풍채와 태도)가 괴위(魁偉, 크고 아름답다)하고 광박(宏博, 넓고 광대)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삼사간에 그 소문이 경주부에 퍼져 큰일을 한 인물로 하늘의 예시를 미리부터 받았다고 했다. 학문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고 학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이같은 사실은 후일 운곡서원(雲谷書院) 창건 때 증명이 된다. 갈산공이 44살 나든 해다. 단종(端宗) 사화로 죽은 충신(忠臣)들이 모두 복권되고 증직(贈職)이 되었음에도 유독 자신의 12대 조(竹林 權山海)만이 빠진 사실을 억울하게 여기고 모암공(慕庵公)처럼 한양으로 올라갔다. 정조의 어가(御駕) 행렬이 육조(六曹) 거리를 지날 무렵 격쟁으로 수레를 막고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정조 13년(1789)에 들어서야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의 이모부이셨던 죽림(竹林, 諱 山海)공의 신원이 이루어졌다. 갈산공의 목숨을 건 격쟁으로 12대 조 죽림공(竹林公)이 신원(伸寃)되고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 금성단(錦城壇)에 휘(諱)가 올려졌다.

갈산공은 죽림공의 교지(教旨)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에 영주 금성단(사적 491호)에 들러 고유를 하고 그곳 암각수(鴨脚樹, 은행나무) 가지를 한자 남짓하게 잘라 행랑에 넣고 경주 길을 재촉하셨다. 4백 여리. 예전 피아골에 써진 죽림공 묘소에 들러 분황(焚黃, 교지를 태우는 의식)을 하다 보니 한 달이 넘어 경주부 국당(菊堂)에 도착했다.

갈산공은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연정(悠然亭) 옆 용추 언덕 자리에 곁집들이 말라버린 암각수를 심었다. 문도들이 "은행나무가 살아 날 리 없다"고 하자 공(公)은 "죽림 선조의 충절이 드러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봄이 되자 기적같이 새우이 나고 가지가 퍼져 큰 숲을 이루었다. 250년이 넘는 풍상(風霜)을 안고 지금 같은 노거수로 자랐다.

갈산공은 문인 간옹(姜翁) 이현경(李獻慶)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조선의 명재상이었던 변암(樊巖) 체제공(蔡濟恭 1720~1799)과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유했던 이름난 선비이었다.

당시 경주부에서 조선의 5대 명상(名相)으로 이름났던 변암 체제공과 교류했던 유림(儒林)으로는 유일했다. 실제로 변암은 운곡서원 상량문을 지었다.

서원 강당(講堂)에 걸린 잠심재(潛心齋) 등 현관 역시 당대의 문신 강세황(姜世晃, 1713~1791) 문신, 서화가의 글씨다. 갈산공 역시 문장가이자 시인(詩人)이었다. 지금도 동경관(東京館, 慶州府客舍)에 가면 그의 칠언시(七言詩)를 볼 수 있다.

순조 12년(1812) 홍경래(洪景來) 난(亂)이 일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었으나 난이 평정되어서 출정하지 않았다. 순조 19년(1819, 己卯年) 눈을 감으시니 75살이었다. 경주부 운곡(雲谷) 남쪽 산에 묘를 썼으며 후일 예전 노봉서원에 배향됐다. 저서 '갈산집葛山集'은 고종 16년(1879, 己卯年)에, 유사(遺事)집도 비슷한 시기에 편찬(編纂)됐다.

배위인신 여주이씨(驪州李氏, 父諱 元中)사이에서 세 아들(次 英致策 次 策致策 次 致致保)을 두었으며 둘째 아들(致策公)은 양자로 나갔으며 두 딸은 정주보(鄭周輔)와 이양운(李養潤) 공에게 출가했다.

2007년 운곡서원 은행나무와 마주 보는 곳에 기적비(紀績碑)가 세워졌다.

<자료출처: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갈산집葛山集 판공공세계보判官公世系譜>

안동 권문의 '좌윤공파' 사람들의 이야기

2024년 11월 14일(목) '좌윤공파의 성지(聖地)인 연원(燕院)에서의 추향(秋享) 참제 후기'

좌윤공파 판사공계 사정공 매와 할아버지의 후손 권기석

우리 속담(俗談)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만 보배가 된다고 했다. 지(知) 아무리 좋은 명당(明堂) 터라도 그 터를 가꾸지 아니하면, 빈 땅에 지치지 아니하게, 경상북도 안동시 잣밭길 39-27번지의 터는 안동(安東) 권문(權門)의 좌윤공파(佐尹公派)의 구슬이요, 보배로다. 연원재사(燕院齋舍)와 파(派) 시조(始祖)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분의 아드님인 추밀공(樞密公), 손자인 병부정랑공(兵部正郎公), 증손인 문과공(文科公), 고손인 영가군(永嘉君), 현손인 고려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그리고 파(派) 시조(始祖) 할아버지의 6세(世) 손(孫)인 문정공(文靖公), 7세(世) 손인 현령공(縣令公)... 도합(都合) 8위(位)의 자리를 고스란히 품은 넉넉한 터로서, 안동 권문의 좌윤공파의 성지(聖地)로다.

이제는 하늘의 운(運)과 후손(後孫)된 도리(道理)가 서로 아우르며, 우리 선조(先祖)들의 빛나고 뚜렷한 열이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물씬 풍기도록 아주 잘 가꾸고 또 가꾸고 했으니, 이에 중심에 서서 문중(門中) 일을 심혈(心血)로 매진(邁進)하시는 권오신(權五信) 회장의 큰 노고(勞苦)로 인해, 앞으로 백 년, 천 년을, 낙동강의 큰 물줄기처럼 장구(長久)하리라! 연원(燕院)이야말로 안동 권문의 좌윤공파의 성지이니, 어느 문벌(門閥)과도 비(比)할 바 없이 과연(果然) 자랑스럽도다.

우리 안동 권문을 최초로 여신, 태사공(太師公) 권(權) 자(字) 행(幸) 자(字) 시조(始祖) 할아버지 이후 300여(餘) 년의 무르익은 그 세월이 고려 후기로 접어들 무렵, 15파(派)로 나누어짐에 좌윤공(佐尹公) 할아버지께서 파(派) 시조(始祖)이시니, 이곳 연원(燕院)의 중심 터에 파(派) 시조의 단소(壇所)를 쌓고, 비문(碑文)을 세워, 무심히 흐른 700여 년의 파(派) 시조에 대한 향례(享禮)를 올리지 못한 그 여한(餘恨)을 풀기로, 2019년 음력 10월 연원재사(燕院齋舍)의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후손들의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결의(決意)한 일련(一連)의 '연원(燕院) 성역화(聖域化) 사업(事業)'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신 권오신(權五信) 회장의 리더십이야말로 우리 좌윤공파 후손들! 모두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파(派) 시조의 단소(壇所) 바로 아래에 아드님인 추밀공(樞密公), 손자인 병부정랑공(兵部正郎公), 증손인 문과공(文科公) - 4대(代)가 나란히 각각의 단소를 쌓고, 비문(碑文)을 세우고, 한편에 합제단(合祭壇)을 설치하니 무려 칠백(七百) 여 년의 실전(失傳)된 그 긴 이름의 세월을 이제 한 자리에서 함께 모시기 되고, 2021년 7월 안동 땅 강남 고지곡에서 이곳으로 이장(移葬)해 온 파(派) 시조 할아버지의 6세(世) 손인 문정공(文靖公)이 부친(父親)인 고려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곁에 옴으로써 일련의 '연원(燕院) 성역화(聖域化) 사업(事業)'이 완성(完成)의 미(美)에 도달(到達)한 듯 산세(山勢)와 지세(地勢)와 주변(周邊)의 풍광(風光) 모두의 품위(品位)가 서로 어울리며, 파(派) 시조 할아버지를 향한 숭조(崇祖) 정신(精神)과 문학(文學)의 산실(産室)이요, 성지임을 만천하에 고(告)함이다.

그동안 또 시간이 흘러 파(派) 시조 단소(壇所)의 심지가 들레석과 더불어 봉봉(封墳)의 잔디도 뿌리의 튼튼함이 주인을 닮아서인지 지리 잡아 질로 생기(生氣)가 돌고, 단소(壇所) 주위(周圍)를 맴돌던 습기(濕氣)도 이제는 물러가고, 명달아 폭신(靱)한 땅의 기운(氣運)이 지나가는 바람조차도 쉬어가게 하는 그 아늑함(安堵)이요, 파(派) 시조 할아버지께서 실전(失傳)의 이름을 씻어낸 그 안도감(安堵感)과 그 흐릿함(靑)이요, 이곳을 찾는 후손들의 발걸음마다 힘이 되어주는 자긍심(自矜心)의 발로(發露)이며, 내 혈통(血統)의 비밀(秘密)의 문(門)을 열게 하는 그 엄숙함(嚴肅)이요, 우리 문중이 문중(門中) 중(中)에 문중(門中)임을 그 자랑스러움이 이곳에서 품어 나오니, 내 존재



(存在)의 의미(意味)도 이에 반응(反應)하는 현장(現場)이요, 실제(實體)이다 싶다.

2024년 11월 14일(음력 10월 14일) 오전(午前) 안동 땅 연원에서 파(派) 시조 할아버지를 비롯한 8위(位) 선조께 올리는 추향(秋享)은 엄숙했다. 날씨가 맑아 이슬이 내리고, 바람 한 점도 숨을 죽이고, 만추(晩秋)의 하늘은 더없이 높고, 눈이 부시도록 고왔다.

연원을 예위한 고풍(古風)스러운 산천초목(山川草木)들도 이미 짙은 가을의 색(色)으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추향(秋享)에 대한 예(禮)를 다하고 있으니, 경향(京鄕) 각지(各地)에서 바쁜 걸음 하신 후손들의 얼굴 저마다도 행복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이 절로 이곳에서 말남과 이별의 흔적(痕跡)으로 우리 문중(門中)의 자연(自然) 박물관(博物館)과 같으니, 있음에 얼마나 자랑스러우니 모른다. 연원만이 가지는 독특한 산세(山勢)와 지세(地勢)는 품을 만큼만 산록(山麓)을 지니고 있어, 더 이상의 길을 내어 주지 아니하니, 지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다 돌아가라 하니, 올 때마다 하루를 꼬박 이곳의 시간이 된다. 합제단(合祭壇)에서 예(禮)를 다하고 영가군(永嘉君)이 계시는 산록(山麓)으로 향하는 빛깔길은 앞으로 연원의 백미(白眉)가 될 것이다. 얼 만큼 걷다, 길 돌아서서 보이는 파(派) 시조(始祖) 할아버지를 비롯한 4위(位)의 단소(壇所)와 비문(碑文)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건너편 산록(山麓)에는 파(派) 시조의 현손인 고려 문하시중공과 그의 아드님 문정공(文靖公)께서 나란히 계시고, 그 아래에 연원재사(燕院齋舍)의 전모(全貌)가 얼마나 아름다우니 모른다. 팔방미인(八方美人)답다 해도 무방하다 싶다. 빛깔길 모퉁이 돌아서서 가파른 길 따라 숨 고르며 올라서면 영가군(永嘉君)의 묘소가 그 오랜 세월에도 빛바랜 없이 보존된 우리의 유일한 선조가 되시고, 바로 아래에는 영가군(永嘉君) 선조의 막내 증손 현령공(縣令公)이 건너편 산록(山麓)에 있는 고려 문하시중공 할아버지와 바로 위에 계시는 증조 영가군(永嘉君)의 묘소를 산지 거처럼 그 직(職)을 지금까지 완수(完遂)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연원 땅 성지를 지키는 파수꾼의 직(職)을 자칭(自請)했음에 그 늠름함과 기세(氣勢)가 또 또한 파(派) 시조 할아버지의 안도감(安堵感)이려니 싶다.

오늘따라 연원 땅 잣밭골에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 높은 가을 하늘 숭조(崇祖)하는 그리움이 유별나다 싶다.

(권오신, 안동권씨좌윤공파현조실록 '좌윤공 사람들', 도서출판 모든. 2022. 708쪽, 참고)

추밀공파 정간공 추향제 봉행



갈산공이 금성단에서 찍어다 심은 운곡서원 은행나무. 사진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정간공(靖簡公) 권희(權禧, 1319~1405) 추향제가 11월 9일 10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묘소에서 종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주요 참석자는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돈 추밀공파종중 회장, 권오협 문종공 종중 회장, 권기준 문경공 종중, 권준우 문종공 종중위원장, 권병돈 전 정간공 종중 회장, 권용주 권순호 매헌공 종중 고문, 권태관 전 매헌공 종중 회장, 권용호 매헌공 종중 회장, 권순구 원주종친회장, 권행관 대중회 편집국장 등 서울, 충주, 음성, 원주, 용인, 수원, 남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종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원주에서는 대형버스 1대를 임차하여 추향제에 참석하는 정성을 보였다.

또한 참제원 150여 명 중 평후공 후손 권나운(35세)씨는 남편 김종규씨와 초등학교 3학년인 딸 김유주 양과 함께 참석하여 추향제의 분위기가 한껏 밝았다. 남양주시 별내면에 거주하는 매헌공 후손 권태현씨는 대학생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와서 눈길을 끌었다.

추향제 현관에는 조현관 권의철, 이현관 권오열, 종현관 권오협, 집례 권영렬, 대축 권태관 등으로 분방하였다. 향사를 마치고 종원들은 그 자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병돈 전 정간공 종중 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이례, 상응례,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재무보고(결산보고), 예산안(2025 회계연도), 심의 의결, 안건 순으로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덕양구 성사동 413-5번지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2024년 10월 27일 건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종중위원장 권순호씨가 대표인 대동건설을 시공사로 가결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또한 권병돈 회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권병돈 전 정간공 종중 회장을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권행관 편집국장



권나운, 김유주, 남편 김종규(왼쪽부터)